

# A House of Glass

## 오색찬란한 공작소, 아바테 차네티 유리 공예 학교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무라노 섬은 산호보다 아름다운 유리로 유명하다. 그곳에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아바테 차네티 유리 공예 학교가 있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학생들은 유리 공예를 배우며 인내심과 침착함을 기른다.

Set on the island of Murano in the Venice Lagoon, the Scuola del Vetro Abate Zanetti glassmaking school is peopled with *maestri* who willingly share their expertise.



“I used to spend all my money on designer handbags and the latest shoes,” confesses Antonella, who lives in the Italian fashion capital of Milan. But since she started glass bead making courses at the Scuola del Vetro Abate Zanetti near Venice, Italy, this immaculately groomed woman saves up all her spare euros to buy the specialist equipment needed to continue with her passion at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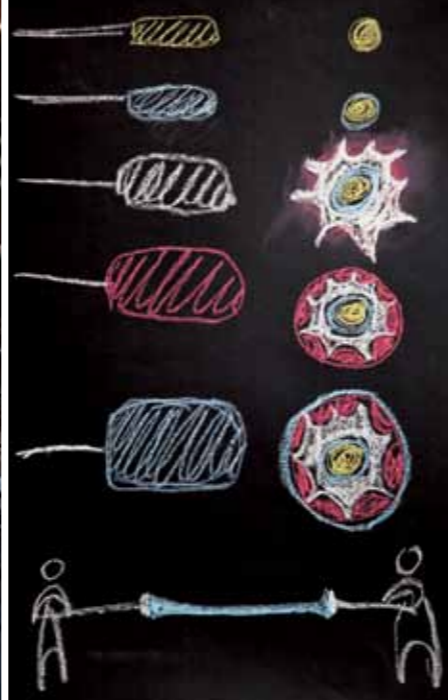
The quiet lagoon island of Murano is only a short ride by water bus from its more famous neighbor, Venice. Close to the landmark Faro lighthouse on Murano, the Scuola Abate Zanetti of glassmaking operates out of beautifully renovated cavernous premises. The school foyer is lined with photos of maestros of glass art past and present, many unsurpassed. The red brick building comprises two stories and each specialization has its own workshop classroom. On the ground floor is the *fornace*, which glows at 1000C night and day, always ready for a demonstration by maestros of the ilk of Vittorio Ferro and Simone Cenedese, from a long family tradition.

This modest island has been synonymous with excellence in glassmaking since at least the 1200s and the secrets of the trade were jealously guarded.

It is still not unusual in this day and age to come across an exquisite Venetian glass chandelier adorning a palace in a far-flung land. Glassmaking contributed to the fortune of Venice, thanks partly to the abundance of one of its es-



아바테 차네티 유리 공예 학교  
Scuola del Vetro Abate Zanetti



“유리 공예는 인내심과 신중함을 요구한다. 조금만 마음에 작업을 서두르면 망치기 십상이다. 때가 되기도 전에 버너에 불을 붙이면 유리가 검게 타서 영롱한 빛을 잃기 때문이다.”  
 ‘Fashioning glass teaches you masses of patience and respect. If you get impatient, want to finish your piece in a hurry and turn up the heat on your blow torch before the time is right, you risk the glass turning black.’



오묘한 색의 향연 공예 연구소. 무리니 기법을 이용한 유리 공예품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스케치. 관을 이용해 유리 구슬을 만드는 모습, 발열 장치를 이용한 작업, 자칫 딴 생각을 하면 유리가 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공예에 사용하는 유리 막대(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유리를 녹이는 그릇(왼쪽).

**Colorful Delicacy** (Clockwise from top left) The laboratory inside the furnace room; a sketch illustrating how to make glass *murrini*; blowing a glass bead; patience is a virtue when working with the blow torch. If it gets too hot, the glass will burn; a finished glass vase. Glass canes used to make designs (right). A glass melting pot (above).



essential ingredients, soda ash, naturally occurring in the lagoon plant glasswort. Furnaces were originally in Venice itself, but were shifted to Murano during the Austrian occupation in the 1700s by imperial decree, to prevent dangerous fires. A glassmaking school was opened in 1862 by abbot Vincenzo Zanetti, an indefatigable 19<sup>th</sup>-century promoter of the island’s speciality. Following a long closure, it reopened in 2000.

The Scuola Abate Zanetti holds courses in bead making, glassblowing, lampworking, *murrini* techniques, casting, fusion, filigree, glass sculpturing, painting, as well as stained glass. Fees start at 400 euros (US\$565) for a weekend workshop, while lengthier courses range from 600-800 euros (US\$860-US\$1,130). Individual and group tuition in both English and Italian are offered. The school also arranges accommodation on both Murano and Venice in bed-and-breakfasts, self-catering apartments or rooms with a local family.

“한때는 돈이 생기는 족족 명품 핸드백과 구두를 샀어요. 그렇게 돈을 다 써 버렸죠.” 이탈리아의 패션 수도 밀라노에 사는 안토넬라가 고백한다. 그러나 유리 공예 학교에서 수업을 듣기 시작한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다고. 호화로운 명품으로 치장하는 생활을 청산하고 저축을 시작한 것이다. 그녀가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이유는 유리 공예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학교 강의가 끝난 후에도 집에서 유리 공예를 계속하기 위해 전문가용 장비를 하나씩 들여놓고 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바로 옆에 있는 섬 무라노. 언뜻 보면 그저 평범한 섬일 뿐이다. 하지만 유리 공예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200년대부터 줄곧 유리 공예의 중심지로 인정받은 것. 지금도 세계 각지의 궁전에는 무라노 장인의 손에서 탄생한 정교한 샹들리에가 빛을 발하고 있다.

무라노에서 유리 공예가 발달한 이유는 유리 공예의 주재료인 소다회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소다회는 함초 또는 통통마디라 부르는 식물에 함유된 물질이다. 함초는 주로 석호 지대에서 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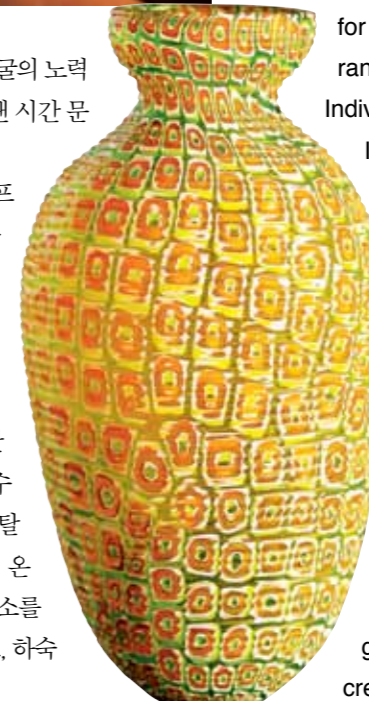
는데 무라노가 바로 이 석호 지대에 자리한다. 섬 사람들이 오랜 세월 유리 세공 비법을 비밀로 지켜 왔고, 덕분에 베네치아 지역은 세공 기술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평화로운 섬의 명물인 파로 등대 가까이에 아바테 차네티 유리 공예 학교가 있다. 재건축을 거쳐 아름답게 태어난 건물이 움푹 파인 지형의 드넓은 대지에서 당당한 위용을 자랑한다. 학교 로비에는 이탈리아 최고의 유리 공예 장인으로 존경받는 거장들의 사진이 줄지어 걸려 있고, 고풍스런 붉은 벽돌로 지은 2층짜리 건물에는 작업실과 강의실이 들어서 있다. 1층에는 벌써 1000도를 유지하며 밤낮없이 불타는 가마가 자리하고 있다. 강사 비토리오 페로와 시모네 체네데세는 유리 공예를 가업으로 삼은 장인으로, 가마에서 직접 공예 시범을 보이곤 한다.

유리 공예에 쓰는 가마는 원래 베네치아에 있었는데, 1700년대 오스트리아가 베네치아를 통치하며 화재 방지 차원에서 무라노 섬으로 옮겼다고 한다. 그 후 1862년 대수도원장인 빈철히 차네티가 이곳에 유리 공예 학교를 설립했다. 그는 19세기에 섬의

특산품인 유리 공예를 부흥시키기 위해 불굴의 노력을 기울인 장본인이다. 하지만 학교는 오랜 시간 문을 닫았다가 2000년에 다시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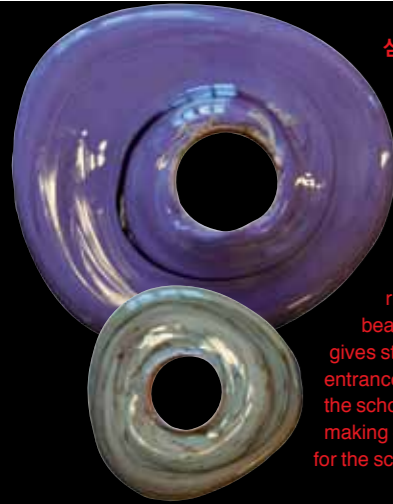
현재 학교는 구슬 공예, 유리 불기, 램프 워킹, 무리니 기법, 유리 주조, 열처리 공법, 선조 세공, 유리 조각, 채색 등 유리 세공과 관련된 수업은 물론 스테인드글라스 강좌도 운영 중이다. 학비는 주말반의 경우 400유로(한화 60만 원 선)이며 장기 과정에 등록하면 600~800유로(90~120만 원)의 교육비가 든다. 개인 교습과 단체 수업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수업은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진행된다. 학교에서는 타지에서 온 학생을 위해 무라노와 베네치아에 있는 숙소를 소개해 주기도 한다. B&B, 자취형 아파트, 하숙 등 형태도 다양하다.



**Tools of a Centuries-Old Trade** Just two doors down from the furnace is the light-filled classroom where *lume* or framework classes are held. Two long tables with stainless steel surfaces are dotted with blow torches of different sizes, operated by students wearing protective goggles and bent in deep concentration over their creations. Alongside each work position are racks

인내로 빛는 예술 가마를 뒤로하고 교실 하나를 지나니 바로 옆 강의실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 나온다. 불꽃을 이용해 작업하는 루메, 즉 플레임워크 수업이 진행 중이다. 두 개의 긴 스테인리스 책상 위에는 용접기처럼 생긴 발열 장치 블로토키가 크기별로 놓여 있다. 안전을 위해 고글을 쓴 학생들이 작품에 코를 박고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작업대 옆에는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여러 개의 유리관과 함께 질석 광물 조각을 가득 담은 쟁반이 놓여 있다. 방화성 물질인 질석 광물에 작품을 올려 두면 유리의 열기를 천천히 식힐 수 있다고 한다. 작업대 위에는 길이가 짧은 유리관을 잡을 때 이용하는 집게, 유리 모서리를 고르게 펴기 위한 판, 잭, 절단기 등 다양한 도구가 주르륵 놓여 있다.

안토넬라는 유리처럼 섬세하고 예민한 소재를 다루면서 침착



**섬세한 손놀림** 학생들이 만든 유리 고리 (왼쪽), 유리 공예 장인 다비데 펜소가 학생들에게 유리 세공 시범을 보이고 있다. 학교 입구의 로비, 체스 게임용 말을 만드는 모습, 학교의 공예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장비(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Passion for Glass**  
(Clockwise from left) Glass rings made by students; glass bead master Davide Penso gives students a lesson; the school's entrance hall; a glass vase made using the school's furnace; a glassmaker making chessboard pawns; materials for the school's laborato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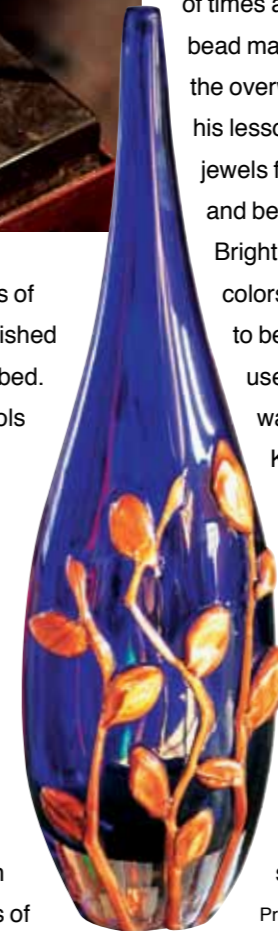


patience and respect," she explains. "If you get impatient, want to finish your piece in a hurry and turn up the heat on your blow torch before the time is right, you risk the glass turning black and completely ruining it — destining it for the reject bin."

Students from all over Italy travel to the school a couple of times a year to attend multi-day workshops with glass bead magician-cum-teacher Davide Penso. Passion is the overwhelming impression you get from sitting in on his lessons. It's mesmerizing to watch him craft glass jewels from colored rods, solids transforming into liquid, and bead after magical bead is cracked off his work rod. Bright baubles such as chevron beads of a multitude of colors appear before your very eyes. Penso is thrilled to be sharing his expertise. A native of Murano, he used to make glass animals for pocket money, but was encouraged to develop his skills by US artist Kristina Logan, who became his mentor.

It's easy to understand how Elena, an architect from Bergamo fell under his spell. She comes back regularly to hone her technique, and reports an increase in bead sales through her Web site. A new participant from Turin beams with newfound satisfaction. Glass objects have become a valuable addition to her well-established handcrafted bonbonnière business. "I was enchanted, it was love at first sight," she says. You can only agree with her. By Gillian

Price Photographs by Carlo Morucchio



함을 배우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됐다고 말한다. "유리 공예는 엄청난 인내심과 집중력을 필요로 해요. 조금만 마음을 갖거나 작품을 빨리 완성하겠다고 서둘러선 안 돼요. 때가 되기도 전에 버너에 불을 붙이면 유리가 검게 타서 작품을 완전히 망칠 수 있거든요. 아무리 공들인 작품이라도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이죠." 안토넬라는 밀라노에서 직장가 가정 생활을 병행하는데, 유리 세공은 정신없는 그의 일상과 완벽하게 반대되는 작업이다.

유리 구슬 공예 장인인 다비데 펜소는 학교에서 일 년에 두 차례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그의 수업을 듣기 위해 이탈리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펜소는 지식을 전수하고 공유하는 데서 큰 희열을 느낀다고 말한다. 무라노 태생인 그는 원래 용돈벌이 삼아 유리로 동물 모양 공예품을 만들곤 했다. 그러다 훗날 멘토가 된 미국의 예술가 크리스티나 로건의 격려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이 길에 들어섰고, 지금의 경지에 이르렀다.

며칠 동안 계속되는 펜소의 강의에 참석한 학생들은 수업과 유리 공예에 대한 그의 열정에 엄청난 감명을 받는다. 펜소가 색

색의 유리관으로 아름다운 유리 보석을 창조해 낼 때, 단단한 유리가 액체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릴 때 그리고 관 끝에서 미술처럼 구슬이 하나씩 떨어져 분리되는 순간, 학생들은 넋을 놓고 장인의 손놀림을 지켜본다. 다양한 색깔을 자랑하는 세브론 구슬 등 각종 유리 구슬이 학생들의 눈앞에서 영롱하게 탄생한다.

밀라노 동북쪽 베르가모에서 온 건축가 엘레나 역시 펜소의 손놀림에 매료됐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학교를 찾아 공예 기술을 연마하여 지금은 웹사이트에서 유리 구슬을 판매하고 있다. 워크숍에 처음 참석한 토리노 출신의 또 다른 학생은 눈앞에 펼쳐진 신세계를 보고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수공예 사랑 그릇을 제작하는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유리 공예품이 사업에 소중한 보탬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유리 공예를 보고 첫눈에 반해 완전히 빠져 들었어요!" 아바테 차네티 학교에 와 본 사람이라면 그녀의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가느다란 관을 훑는 순간 영롱한 빛깔의 유리 구슬이 맺히는 광경은 정말 미술만큼이나 흥미롭다. 글 질리언 프라이어 사진 카를로 모루키오

of rainbow-colored glass rods, as well as trays of fragmented vermiculite mineral, where the finished pieces nestle, cooling off slowly in a fireproof bed.

The work bench is lined with the various tools required. A *ciapacane* is a pincer for grasping short glass rods without burning your fingers. This is just one of the custom-made pieces fashioned in stainless steel — others are marvers (for flattening edges), jacks, shears and tweezers.

Antonella also explains how working with the exquisite delicate medium that is glass taught her to slow down and brought her peace of mind — in stark contrast to the hectic professional and family life she leads in Milan. "Fashioning glass teaches you masses of